

제자백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인(仁) 강조], 맹자[의(義) 강조, 성선설], 순자[예(禮) 강조, 성악설]
훈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없어진 경서의 복원·해석에 충실하는 해석적 유학, 5경(『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 중시 • 한(漢) 대 : 동중서의 제안, 무제 때 관학의 지위 • 당(唐) 대 : 공영달의 『오경정의』 완성(고종, 653)
성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송 대 주희(1130 ~ 1200) 완성 • 철학적 유학,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신유학, 형이상학적 유학 • 성즉리(性卽理), 이기론(理氣論) 강조, 『근사록(近思錄)』(1175) • 4서(『논어』·『맹자』·『대학』·『중용』) 중시, 주희의 『사서집주』(1177) • 군신 간의 의리, 대의명분을 중시 → 화이론 강화, 신분제·지주제 정당화 • 중국·조선 → 정치 윤리 + 사회 윤리, 주희의 『주자가례(朱子家禮)』 중시
양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송(南宋)의 육구연이 심학(心學) 강조 • 명(明) 대 왕수인(= 호 ‘양명’, 1472 ~ 1528)의 완성, 『전습록(傳習錄)』(1511) • 심즉리(心卽理), 양지(良知), 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는 실천적 유학 •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에게도 큰 환영 → 지나친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폐단
실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明) 후기, 실사구시의 실용적 유학 • 『본초강목』(이시진, 의학, 1596), 『천공개물』(송응성, 산업 기술, 1637), 『농정전서』(서광계, 농학, 1639)
고증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말 청초 고염부(1613 ~ 1673), 황종희(1610 ~ 1695) 등이 선구적 역할 •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사실 규명 중시 • 청(淸)의 사상 탄압(문자의 옥)과 한인 지식층 회유를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 과정에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도서집성』(옹정제, 1725), 『사고전서』(건륭제, 1773 ~ 1782)
공양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법적 유학, 캉유웨이(1858 ~ 1927)·량치차오(1873 ~ 1929) • 진보 사관, 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 1898)의 이론적 토대
신문화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5년 천두슈(1879 ~ 1942), 후스(1891 ~ 1962) 등이 『신청년(新靑年)』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과학을 배울 것을 주창 → 1919년 5·4 운동의 사상적 바탕

중국	남송	서원	• 성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사설 교육 기관
		향약	•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 → 성리학적 규범이 서민에게도 확산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에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 • 『성리대전』(1415) 등 성리학을 집대성한 문헌 편찬 →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널리 사용 • 지배 계층인 신사 → 지역 여론 주도, 향촌 사회에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에 이바지 	
한반도	고려	수용	• 안향(1243 ~ 1306), 원에서 『주자전서』 도입, 성리학 소개, 1290년(충렬왕 16)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권당(1314 ~ 1321)에서 원(元)의 학자와 교류 • 이제현(1287 ~ 1367), 이색(1328 ~ 1396)의 활동 • 사서가 과거 시험에 포함,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불교 사원과 권문세족의 횡포 비판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의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의례와 사회 의례의 기준 • 사림의 성장 → 향약의 보급(여씨 향약, 1517), 백운동 서원 건립(1543) →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질서 확산 • 철학적 논의 → 사단 칠정 논쟁(1559 ~ 1566), 인물성동이논쟁(18세기) • 조선 후기 → 장남 중심 제사 봉행, 장남 중심의 재산 상속, 양자 제도 일반화, 친영(시집간다) 제도 확산 	
일본	전래	• 가마쿠라 막부 후기	
	학자	후지와라 세이카	• 원래 불교 승려, 정유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강항(1567 ~ 1618)과 교류 → 『사서오경왜훈』 간행
		하야시 라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 • ‘상하 정분(定分)의 이(理)’ 를 바탕으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사회의 틀 강화 • 성리학의 관학화 주도, 에도 막부의 교육과 학문 관장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을 세습하는 무사들이 지배층 형성 → 유학 경전을 시험하는 과거제도가 시행되지 않음 • 불교, 신토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는 못함 		



중화 사상 송은 요·금에게 매년 막대한 양의 세폐를 바쳐야 했다. 나아가 금이 회복을 차지하면서 송은 양쯔강 이남으로 쫓겨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렬한 화이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중화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이민족에 대한 자주성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은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희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주자라고도 불린다. 주희는 인간과 사회, 인간과 우주가 '이'라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면서 성리학을 완성하였다. 그는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원 대 이후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택되었다.



송 대의 사대부 송 대 과거제가 확대되면서 지배층으로 성장한 사대부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대부는 서원과 향약을 보급하여 성리학을 확산시키고 후학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백운동 서원 성리학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조선 시대에 성행하였다. 16세기에 사림들은 서원을 건립하고 향약을 보급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리학적 윤리의 향촌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야시 리잔 임진 전쟁과 정유 전쟁 때 조선의 유학자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서오경왜훈"을 간행하였고, 그의 제자인 하야시 리잔은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문묘(베트남) 15세기 중엽 레 왕조의 성종이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을 보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성리학은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 중국

춘추~진
전국
공자
분서
갱유

~ 한
孝 → 충(황제)
유교 관학화
동중서

~ 남북조
· 불교, 도교
· 유학 쇠퇴

~ 당
「오경정의」
· 훈고학 집대성
: 유학 획일화

송

- ① 강남 지주 → 유학 공부
- ② 과거 → 사대부(문치주의)
- ③ 국방력 약화, 북방 유목 민족 압박, 중화사상대
- ④ 불교·도교의 형이상학 수용
도교 은둔, 불교 출가 비판
- ⑤ 우주 원리와 본성 탐구 → 신유학
주돈이(태극) → 장재(기) → 정호·정이 → 주자
성즉리, 이기론 : 거경궁리 : 격물치지
주희, 「사서집주」(원·명·청, 조선의 과거 교재)
명본론(상하관계), 화이관(이민족과 중화 차별), 지주전호제 정당화

명

· 성리학의 관학화
· 「성리대전」(영락제)
· 확산 : 서원, 향약
⇕
cf) 양명학
明, 왕양명(왕수인)
↳ 남송 육구연의 심학 수용

(명말청초)

경세치용
실질 숭상
객관 강조
음운·경학
역사·지리
문헌 고증

고증학 (실증)

• 한반도

고려

- ① 안향, 원, 「주자전서」, 1290
- ② 이제현, 백이정, 이색, 정몽주
- ③ 불교·권문세족 비판
- ④ 만권당(원 학자 교류, 1314)

조선

- ① 국가·사회 지배 이념
- ② 「사서집주」(과거 교재)
- ③ 이황, 「성학십도」, 일본 영향
이이, 현실 개혁, 「격몽요결」
- ④ 백운동 서원(주세붕, 1543)
향약(사림, 향촌, 1517)
- ⑤ 논쟁[태극, 주리·주기 논쟁]
: 예송(상복), 인물성동이 논쟁

- ⑥ 명·청(사절단), 일본(통신사)
- ⑦ 『주자가례』(관혼상제), 가묘(家廟)
- ⑧ 중기 이후
: 동성불혼, 가부장적 가족 질서 강화
: 사당(祠堂)
- ⑨ 의학 서적
: 『향약집성방』(1433)
: 『동의보감』(1613)

< 조선 후기 >

- ① 윤희, 박세당 : 독자적 경전 해석(→사문난적)
- ② 중농학과 실학 : 유형원, 이익, 정약용(목민심서, 경세유표)
- ③ 중상학과 실학 : 청(淸) 문물 수용, 이용후생 강조
: 홍대용(중국 중심 세계관 비판)
: 박지원(「열하일기」, 수레·선박 사용)
: 박제가(「북학의」, 소비 = 우물 비유)

• 일본

가마쿠라 막부(12~14C)

· 성리학 전래

~ (도요토미 히데요시)

↳ 정유전쟁 : 강항 ~ 후지와라 세이카
「사서오경왜훈」

에도 막부(17~19C)

하야시 라잔(1583 ~ 1657)

① 상하 질서(상하 정분의 이)

② 막부 제도·의례 정비

야마자키 안사이(1618 ~ 1682)

① 「사서집주」, 「근사록」 강조

② 신토를 이기론으로(성리학적) 해석

↔ 주자의 해석에 이의 제기

· 고학 : 이토 진사이(1627 ~ 1705), 고대 유학으로 복귀

· 국학 :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 국가주의적

↳ 영향 - 일본 우월, 존왕양이, 국가 신토(일왕 충성)

· 양명학 : 구마자와 반잔(1619 ~ 1691), 막부의 세습 비판

cf. 일본 유학
- 가묘·종묘無, 에도막부 유시마성당(대성전, 교육, 1690)
- 성리학 일본 실정에 맞게 해석, 훗날 양이론에 영향
- 결혼 등 의례는 신토, 장례·제례는 불교식

• 베트남

리 왕조(11~13C)

문묘 설치(1070)
과거제 실시(1075)
국자감 설치(1076)

찐 왕조(13~15C)

국학원 설치
↳ 사서오경 교육

(후) 레왕조(15~18C)

타인 똥(재위 1460 ~ 1497) : 신유학 보급(사서 중심)
과거제 → 진사제명비[1442(최초), 1484 ~ 1787, 하노이 문묘 안에 설치, 과거 합격자 기록]

* 전반적으로 일본처럼 성리학의 영향이 제한적

개념 Check

- ① 남송의 () (1130 ~ 1200)는 우주의 보편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 ② 성리학에서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수양론으로 거경궁리와 ()가 있다.
- ③ 선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과 향촌 자치 규약인 향약은 성리학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④ 고려 말에 성리학을 수용한 ()는 불교와 권문세족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 ⑤ 고려 충선왕 때 원(元)의 수도인 대도에 ()이 설치되면서 고려와 원의 학자들이 교류하였다.
- ⑥ 조선 시대에는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 _____』)가 편찬되었다.
- ⑦ 주세붕이 세운 () 서원은 1550년 소수 서원으로 사액되었다.
- ⑧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였던 ()은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기여하였다.
- ⑨ 후지와라 세이카는 조선의 강항과 교류하면서 (『 _____』)을 간행하였다.
- ⑩ () 왕조의 성종(타인통, 재위 1460 ~ 1497)은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다음 책을 남긴 사람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教)라 한다.

명(命)이란 영(命)과 같다. 성은 곧 이(理)이다. 하늘은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한다. 기(氣)로써 모양을 만들고 이 역시 여기에 부여되니,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사람과 사물의 태어남이 각기 부여받은 바의 이를 얻음으로써 음양오행의 덕을 삼으니, 이른바 성이라 하는 것이다.

- ① 격물치지를 수양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 ② 황제가 주관하는 전시를 도입해야만 한다.
- ③ 성리대전을 과거 시험 출제에 활용해야 한다.
- ④ 신사들을 향촌 사회의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 ⑤ 수도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두어야 한다.